북스

Books

조선 선비들의 빛나는 우정

거문고 줄 꽂아놓고-옛 사람의 사귐

이승수 지음

조선의 옛 선비들은 배려와 신뢰를 바탕으로 벗과 사귀었다. 홍득구 작 '고산방학'.

배려·관용·신뢰가 가득
편지·시·산문 등 통해 본
24명의 아름다운 교제

유명한 산드로 마라이의 소설 '열정'에는 이런 대목이 나온다.'세상에서 이기심 없는 우정보다 어려운 것은 없다.' '진짜 우정은 아무것도 원하지 않기 때문에 남녀의 정열보다 강하며 실망이라는 것을 모른다.'

자신의 이익을 따지지 않고 상대방에게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 '우정'은 그만큼 어렵다는 의미일 것이다.

'조선의 지식인들과 함께 문명의 연행길을 가다'의 저자인 이승수씨 역시 산드로 마라이와 비슷한 생각을 한 듯 싶다. 역사 속 인물들의 만남을 통해 우리에게 모든 관계의 기본인 '우정'의 의미를 생각해 보게 해주는 책 '거문고 줄 꽂아놓고-옛사람의 사귐'을 펴낸 이 씨는 이 책에서 우정의 제 1 요건은 상대방을 '자유롭게' 해주는 것이라고 말한다.

저자는 조선시대 선비들이 주고 받은 편지, 시, 산문, 그림 등 각종 문헌자료와 일화를 통해 이익과 권력에 얽매이지 않고 서로의 사유와 삶을 존중했던 옛 사람들의 '사귐'을 소개한다. 독자들은 우정의 가장 중요한 덕목인 배려(자유로움)와 관용, 신뢰를 실천한 12쌍의 아름다운 사람들을 만날 수 있다.

같은 해에 태어나 함께 한 세상을 살았던 정몽주와 정도전은 흔히 역사의 라이벌로 불린다. 정몽주는 고려의 존속을 도모했고, 정도전은 조선 왕조의 창업을 주도했으니 그들은 목숨까지 내놓고 치열한 경쟁을 해야하는 운명이었다.

하지만 정도전은 학문으로 이름을 남긴 정몽주를 스승처럼 존중했고, 정몽주 역시 부모를 여의고 소백산 산골에 머물고 있는 정도전을 위해 '맹자' 한질을 챙겨 보낼 정도로 세심한 배려를 아끼지 않았다. 두 사람은 상대방을 비난하거나 헐뜯지 않고, 상대방을 쓰러트리기 위해 어떤 음모도 꾸미지 않았다. 상대방의 '자리'를 있는 그대로 인정한 것이다. 두 사람의 관계는 진짜 우정이란 '대결'을 넘어서는 '신뢰'를 바탕으로 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오성과 한음'이라는 이름으로 더 잘 알려진 이항복과 이덕형의 우정도 소개된다. 나이도 다른데다(이항복이 다섯살 더 많다) 기질마저 판이했던 두 사람은 임진왜란, 인목대비 유폐 등 국가의 대사를 논의할 때는 절대적인 신뢰를 바탕으로 끊임없이 대화하고 협력했다. 그들은 차이는 인정하고 그 속에서 소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려 애쓰며 우정을 이어나갔다.

이 책에서 유일한 남녀 커플인 허균과 매창의 이야기는 '남녀 사이의 우정은 존재하는가'라는 질문을 던진다.

기녀 매창을 본 허균은 첫인상을 '외모는 대단치 않아도 재주와 정감이 있어 함께 이야기할 만하다'고 기록했다. 이후 두 사람은 하루 종일 술을 마시고 시를 주고 받았다. 이후 두사람은 야릇한 애증으로 뒤섞이지 않고 물처럼 맑고 담담한 우정을 지켰으며 매창이 38의 나이로 세상을 떠나자 허균은 두 편의 시를 지어 벗을 애도했다.

그밖에 책에서는 실학자 박제가와 조선후기 무인이었던 백동수가 나눈 가난한 시절의 우정을 비롯, 김상헌과 최명길, 이익과 안정복, 나옹화상과 이색, 성운과 조식, 김시습과 남효온의 의미있는 '사귐'을 만날 수 있다. 〈돌배게·9천500원〉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서울대, 연·고대 권장 논술네비게이션 10권

서울대·연세대·고려대 권장도서 중 100권을 뽑아 논술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한 시리즈가 나왔다.

이번에 출간된 '논술네비게이션시리즈' 1차분은 '열하일기', '걸리버 여행기', '종의 기원', '쉽게 풀어쓴 철학적 탐구', '동방견문록', '논어', '쉽게 풀어쓴 정신현상학', '군주론', '꿈의 해석', '통치론' 등 10권.

이들 책은 고전이나 명서를 축약 또는 요약하는데서 그치지 않고 작품의 배경과 사상사에서 차지하는 의미, 다양한 해석, 통합형 논술에 대비한 문제와 예시답안 등을 함께 싣고 있다. 논술을 준비하는 학생 뿐 아니라 평소 읽고 싶었지만 엄두를 내지 못했던 일반인들에게도 유익할 것으로 보인다.

〈위너스초이스·각 권 6천~6천800원〉

바스러지기 쉬운, 그래서 더 쓸쓸한 삶

하성란의 네번째 소설집 '웨하스'

올해로 데뷔 10년을 맞는 소설가 하성란(39·사진)이 '푸른 수염의 첫번째 아내'(창비 펴냄) 이후 4년만에 네번째 소설집을 냈다.

'웨하스'에는 2004년 이수문학상 수상작 '강의 백일몽'을 비롯해 '1984년', '웨하스로 만든 집', '그림자 아이', '자전소설' 등 2002년 이후 발표한 11편의 단편 소설이 실려 있다.

저자는 과거의 어느 한 시점으로 돌아가는 시간여행을 하면서 장면 장면을 세밀하게 묘사한다. 일찍이 '마이크로 묘사'라는 평가를 받은 '하성란식 문체'는 이번 소설집에서도 여지없이 드러난다.

표제작 격인 '웨하스로 만든 집'에서 주인공 여자는 이혼한 뒤 십년 만에 귀국해 폐허가 돼버린 옛 집을 찾는다. 주인공은 이제는 '웨하스'처럼 바스락거리는 이층 마루를 통해 그 곳으로 처음 이사온 날을 떠올린다.

'강의 백일몽'에서는 한 장의 오래된 사진을 보며 자동차에 치인 개에게 팔뚝을 물렸던 20년 전, 소매치기 남자의 팔뚝을 물었던 10년 전으로 돌아가 현재와의 '강'을 인식한다.

'1984년'의 주인공 '나'는 자신의 소박하고 순조로웠던 삶을 회고할 때면 어김없이 염력으로 숟가락 구부리는 것이 유행이던 해를 떠올린다. '나'에게 1984년은 유리겔라의 숟가락 구부리기가 '쇼'였다는 것이 밝혀진 것처럼 '없는 희망'이자, 나의 경우 실제로 숟가락을 구부려버린 '삶의 마지막 근거'이기도 하다.

자전적인 소설을 발표한 소설가가 친구들과 술잔을 기울이다 과거 자신들이 벌였던 끔찍한 사건 현장으로 말려들어가고('자전소설'), 퇴물 여가수는 해안가 호텔의 정원을 보며 17년 전 봄의 기억을 더듬는다('극지호텔').

또 해외 출장 중 의문의 죽음을 맞은 남편의 과거 행적을 쫓는 여인('낮과 낮'), 오른손에 대한 기억을 상실한 채 요양소 신세를 지고 있는 남자('그림자 아이') 등을 통해 저자는 부재하거나 왜곡된 과거의 시간과 기억을 되짚으며 현실의 일상적 아이러니를 보여준다. 삶이란 견고하지 못하다는 것, 그래서 더욱 쓸쓸하다는 사실을 일깨운다. 〈문학동네·9천500원〉

/정상필기자 camus@kwangju.co.kr

+ i

▲서동과 처용이 삼국유사를 박차고 나오다='서동요' '처용가' '헌화가'…. 일반인들에게도 익숙한 작품이다. 저자 전경원 고전 문학박사는 삼국유사에 등장하는 17개 작품의 배경을 살펴보고 현대식으로 해석했다. 〈꿈이있는세상·9천8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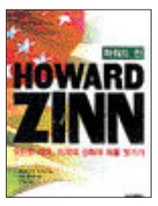
▲나비를 태우는 강=광주 출신 작가 이화경의 첫번째 장편 소설이다. 가족으로부터 고립된 상처가 있다는 공통점을 가진 준하와 첸, 쿨만 세 사람은 서로에게 엇갈린 사랑을 느낀다. 동성인 쿨만에게 사랑을 느끼는 첸, 그리고 첸을 가슴 아프게 바라보는 준하를 통해 인생의 의미와 관계의 본질을 묻는다. 〈민음사·9천원〉

▲내 사랑의 역사=12세기 유럽을 뒤집어 놓은 스캔들의 주인공 엘로이즈와 아벨라르. 수도사인 스승과 스무살 가까이 어린 수녀의 사랑은 결국 비극으로 끝났다. 저자 제임스 버지는 연인이 남긴 편지를 통해 그들의 사랑을 조명한다. 〈북폴리오·1만5천원〉

▲카오스의 본질='나비효과'로 잘 알려진 기상학자 에드워드 로렌츠의 책이다. 지난 1990년 워싱턴 대학에서의 강의를 엮은 것으로 카오스 현상을 관찰할 수 있는 방법과 나비효과를 설명한 논문 등 흥미진진한 기상이야기가 담겨있다. 〈파라북스·1만8천원〉

▲히포크라테스 선서=의사라면 누구나 하게 되는 히포크라테스 선서에 담긴 의학의 근본 정신을 탐구한다. 히포크라테스 연구로 박사 학위를 받은 반덕진 교수는 선서의 탄생 배경과, 선서의 내용에 담긴 이상이 우리 사회에 주는 메시지를 담아냈다. 문어체 형식으로 가독성을 높였다. 〈사이언스북스·1만5천원〉

▲재미있는 무대밖 무대 이야기=전인권, 들국화, 신해철 등 국내 유명 음악인들의 공연을 기획·제작해온 저자 탁현민이 자신이 직접 보고 들은 대중음악 '판'에 대해 신랄한 뒷담화를 해댄다. 공연사기, 이익만 노리는 방송사와 기획사를 비판한다. 〈나무와숲·9천800원〉



▲하워드 진=노엄 촘스키와 더불어 양심적인 지식인으로 추앙받는 하워드 진의 생애를 살펴본다. 데이비스 조이스는 미국 역사를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본 하워드 진의 '미국 민중사' 등 저서를 중심으로 그의 사상을 분석하고 업적을 평가한다. 〈열대림·1만6천800원〉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실험 열가지=실험이 아름다울 수 있을까. 저자인 로버트 P.크리즈는 "그렇다"고 말한다. 설문을 통해 결정된 '단독 전자의 이중 슬릿 실험' '갈릴레오의 피사의 사탑 낙하 실험' '뉴턴의 프리즘 빛분해 실험' 등을 통해 과학의 경이로움과 아름다움의 의미를 되새긴다. 〈지호·1만5천원〉

▲달빛구두 1,2,3=스포츠 신문에 실려 뜨거운 인기를 얻었던 만화인'또띠' 작가 정연식의 첫 장편 만화다. 미디어 다음에 2년 동안 연재된 것을 책으로 묶어냈다. 70,80년대를 배경으로 사람과 사람 사이의 따뜻한 정을 가슴 찡한 에피소드를 통해 전한다. 〈휴머니스트·각권 1만원〉